

급격히 사망하는 병



■ 유 독 로

사람의 목숨은 매우 강인하고 힘찬 것 같으면서도 어떤때는 어이없도록 약하다는 것을 통감할때가 있다. 즉 그 누구보다 건강을 자랑하고 튼튼한 몸매를 과시하던 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망하거나 할때 인생(人生)의 무상(無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급사를 가져오는 병들은 그 종류가 많다. 따라서 제한된 지면 때문에 중요하고 흔한 것 중심으로 논해볼까 한다. 급사의 원인을 대별하여 ① 출혈성 급사(出血性急死) ② 각종 중독사(各種中毒死) ③ 사고사(事故死) 등 기타 원인에 의한 급사를 들 수 있다.

1. 출혈성 급사(出血性急死)

질병으로 뇌혈관 출혈로 오는 급사

가 비교적 많다. 우리나라에서 중년 이후의 사망에서 큰 비율을 차지한다. 또 결핵이 심할때 대격혈(大咯血)로 급사 하는 수가 있는가 하면 심한 위궤양이나 장티프스 같은 전염병으로 대량의 위출혈로 급사 하는 수도 있다. 여자의 경우에는 이상임신(異常妊娠)이나 자궁 과혈등으로 대량의 하혈(下血) 때문에 사망 하는 수가 있다. 또 대동맥류(大動脈瘤)가 파열(破裂)될 경우 숨돌릴 사이도 없이 급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 이외에도 체내의 순환기 체계의 대량출혈로 인한 급사가 올 수 있으나 앞서 열거한 여러가지 질환의 발생빈도(發生頻度)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하겠다.

2. 여러가지 중독사(中毒死)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 생활주변에 여러가지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유해(有害)가스가 혼해져 이런 것들에 의해 급성중독이 일어나 급사하는 일이 많아졌다. 농약이나 각종 살충제에 의한 중독으로 급사하는 일이 많으며 어린이들이 약이나 화공약품을 잘못먹고 급성중독으로 사망하는 일이 종종 있다. 또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연탄가스중독은 일산화탄소(一酸化炭素)라는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인데 일년에 2,000명 이상이 이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20,000 이상이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치료를 받아야할 형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출혈성 급사를 제외하고는 가장 흔한 급사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 이밖에도 각종 화학공장에서 취급하는 유독가스에 중

독되어 급사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으며 농약, 각종살충제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것들에 의한 급사는 증가 될것으로 예측되어 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3. 사고사(事故死)

중독사고도 일종의 사고사이나 그 양상이 다르므로 사고자와 분리하여 논하였다. 사고는 그 원인이 매우 많다. 이중에서도 교통사고에 의한 급사가 가장 흔할것이다. 이 이외에도 익사, 추락사, 압사, 소사(燒死), 등을 들수 있고 세계보건기구(W. H. O)의 질병 분류에 의하면 타살(他殺)도 사고사(事故死)로 취급되므로 급사의 한 원인(原因)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중독사나 사고사(事故死)가 증가일로에 있어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전문적으로하는 이른바 사고학(事故學)이 독립될 단계에 있다. 많은 선진국에 있어 사고사는 사망원인의 상위에 들어 있고 수년내로 많은 선진국의 사망원인에 있어 사고(事故)가 수위(首位)를 차지하리라고 전망되고 있다. 사고는 대부분 급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신속한 응급조치로 사생(死生)이 좌우될수 있으므로 미래에 있어서 의학이 가장 역점(力點)을 두고 다루어야 할 분야로 되어 있다.

4. 기타 원인에 의한 급사

미국의 경우에는 관상동맥경색증으로 급사 하는 예가 많고 때로는 신경성「쇼크」으로 사망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미 논란바와 같이 단시간에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역시 출혈성질환, 유해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그리고 각종 사고로 인한 경우가 많은것 같다.

불치의 병으로 선고받은 암이나 간경화증, 만성신장염, 각종 내분비 질환은 치료의 방도도 없고 일정한시기가 되면 어쩔수 없이 생명을 잃게 되나 이것들을 급사로 취급치는 않는다. 따라서 급사를 가져오는 무서운 질병은 신체내부의 갑작스런 대출혈(大出血)을 빼놓고는 사고의 성질을 띄고 있다. 사고라는 것은 불가피한것도 많지만 사전에 그 예방이 가능한것도 많고 또 유효적절한 응급조치로 급사를 막을수도 있다. 따라서 한나라의 의학수준을 평가할때 그나라의 의로기술이나 의료망(醫療網)이 얼마만큼이나 구제가능한 응급환자를 급사로부터 살려낼 수 있느냐가 큰 척도가 될수 있을것으로 믿는바이다.

<필자=서울의대 예방의학 부교수·서울대학병원 고압산소실장·의박>

■ 기생충 박멸 표어

청정채소 보급하여

기생충을 예방하자

—한국기생충박멸협회—